



이대호 광! 위대한 출발

짧게치던 이대호 세이부 연습경기 마수걸이 투런
절친 추신수도 시범경기 첫 홈런...원원공식 증명

미국과 일본에서 '부산 사나이'들의 홈런포가 나란히 폭발했다. 클리블랜드 추신수와 오릭스 이대호, 1982년생 동갑내기 친구가 같은 날 약속이나 한 듯 첫 아치를 뿜으며 홈런포 가동에 들어갔다.

오릭스 이대호는 8일 제2홈구장인 고베 호토모토필드에서 열린 세이부와의 연습경기 4번 1루수로 선발출장해 1회 2사 1루서 상대 선발 오이시 다쓰야의 초구를 건어 올려 좌중간 펜스를 넘기는 2점홈런으로 연결했다. 오이시는 지난해 2군 15경기에서 6승4패, 방어율 2.25를 기록한 우완 영진. 2010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6개 구단으로부터 1순위 지명을 받을 정도의 기대주다. 그러나 이대호에게 홈런을 맞은 뒤 곧바로 2군행을 지시 받았다. 시범경기가 아닌 연습경기라 공식기록으로 잡히지 않지만 하루 전 교세라돔에서 끝마친 2루타를 때린 뒤 나온 연속 장타. 세이부전 홈런은 한동안 낯선 일본 투수들의 볼에 욕심 내지 않고 짧게 끊어 치던 이대호가 이제 본격적으로 방망이를 돌리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이대호는 2번째 타석에서 우익수 플라이로 물러난 뒤 4회 수비 때 교체됐다.

눈길을 끄는 건 이대호의 홈런이 터지기 전, 태평양 건너 미국에서 클리블랜드 추신수가 시범경기 첫 안타를 홈런으로 장식했다는 사실. 둘은 부산 수영초등학교에서 함께 야구를 한 뒤 중·고교를 나란히 부산에서 나온 친구이자 라이벌이다. 2000년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 우승, 2010년 광주 우아시아게임 금메달을 합작하기도 했다. 수영초 3학년 때 먼저 야구를 하고 있던 추신수가 이대호의 손을 이끌고 야구에 입문시켰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두 사람은 8일 뿐만 아니라 이미 수차례 같은 날 동반 홈런포를 쏘아 올렸다. 한국시간 기준으로 오전에 먼저 추신수가 홈런을 치면 오후에 이대호가 홈런을 치는 날이 많았다. 지난해 추신수와 이대호는 5월 14일, 8월 24일 같은 날 홈런을 쳤고, 각각 메이저리그와 한국프로야구에서 커리어 하이(추신수 22개·이대호 44개) 홈런을 찍은 2010년에도 동반 홈런포를 때린 날이 4번이나 됐다. 추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첫 1경기 3홈런을 때린 2010년 9월 18일, 이대호는 개인 시즌 최다인 44호 아치를 뿜었다. '추신수가 홈런을 치면 이대호도 친다'는 기본 좋은 공식이 생겼고, 8일 둘이 나란히 시즌 첫 홈런포를 쏘아올린 것에 눈길이 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일본에 건너간 이대호는 한국 최고 타자가 일본에서도 최고 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고, 추신수는 지난해 아쉬움을 털고 새롭게 도약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약속이나 한 듯 나란히 첫 홈런을 토해낸 둘에게 관심이 모아진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트위터@kimdohoney

8일(한국시간) 오전 추신수가 시범경기 첫 홈런을 치자, 오후 이대호가 역시 2012년 첫 홈런포를 가동했다. 이날 고베 호토모토필드에서 벌어진 연습경기 세이부전 1회 2사 1루서 이대호의 방망이가 홈런을 토해내고 있다. 고베(일본) | 연합뉴스



앤서니 기자의 추신수 스토리



클리블랜드 추신수가 8일(한국시간) 애리조나전을 통해 올 시범경기 첫 안타를 홈런으로 장식했다. 스포츠동아DB

미 전역에 알린 추신수 부활포

추신수가 2012시즌 첫 홈런을 쏘아 올리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추신수는 수요일(한국시간 8일) 애리조나주 스크즈데일에서 열린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의 경기에서 상대 투수 트레버 카힐로부터 1회 솔로홈런을 때렸다. 잭터 스리그 시범경기에서 6타수 만의 일이다. 그의 홈런은 팀이 애리조나를 10-2로 이기는데 힘을 보탤다.

그 홈런은 레이저 광선과 같은 직선타로 날아가 좌중간 펜스를 넘겼다. 2번 타자 제이슨 킵니스가 카힐로부터 2점홈런을 친 직후에 연속홈런이 나왔다. 매니 악타 감독은 "추신수가 한 방 때려내는 것을 봐서 좋았다"고 말했다.

시범 경기에서 그의 첫 안타가 홈런으로 나왔기 때문에, 추신수는 즐거워했다. 그것은 그가 배팅케이지 안에서 기울었던 노력이 보답 받았다는 것을 보여줬다. 실제로 비록 정규 시즌의 개막이 한 달 정도 남아 있지만, 추신수는 개막전에 출전하고자 원했던 그 순간이 이미 가까워왔다는 것을 믿고 있다. 올 봄에 추신수가 이뤄낸 발전과 정신력에 대해 현장에서 그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도 매우 흥분되어 있다. 그들은 그가 전성기로 가는 길목에 서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추신수가 만약 몇몇 새로운 팬들을 만들기를 원했던 것이라면, 그는 적절한 시기에 홈런을 때려낸 셈이다. 애리조나와의 경기는 MLB 네트워크를 통해 미국 전역에 방송됐다. 그리고 양 팀 선수들은 마이크로폰을 게임 중에 끼고 있어서 시청자들은 메이저리그 경기 중의 잡담을 들을 수 있었다. 그것은 마치 그라운드 안에 있는 듯한 드문 경험이었다. 평소의 불철 시범경기보다 많은 시청자들 앞에서, 추신수는 큰 것을 때려냈다. 그는 또한 불빛을 얻었으며 팀이 승리하는 가운데 또다른 득점을 기록했다.

추신수는 아직 9이닝을 다 뛰거나 한 주 내내 경기에 출장하는 지점에 이르는 않았다. 메이저리그 구단에서 확고한 위치를 갖고 있는 다른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그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162게임의 시즌을 앞두고 준비하면서 그의 컨디션을 끌어올릴 것이다.

그리고 비록 이 경기들이 기록에 집계되지는 않지만, 선수들은 여전히 성공의 징조들을 보기를 원한다. 그것은 단지 그들의 경쟁 본능이다. 그런 의미에서 추신수의 수요일 경기는 매우 좋았다. MLB.com 기자

야구협회, 아마대회 활동실 심판위원 30명 발표

대한야구협회는 8일 올해 각급 전국 아마추어대회에서 활동할 2012년 심판위원 30명을 발표했다. 새로 위촉된 심판위원 중 황재원(33) 씨는 비 선수 출신으로 2010년 설립된 야구심판학교에서 배출된 첫 심판위원이다. 황 위원은 직장인으로 10년을 살다 올해 초 한국야구위원회(KBO)와 대한야구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야구심판학교 3기 과정에 입학했다.

다르빗슈 유, 샌디에이고 상대 2이닝 무실점

메이저리그 텍사스의 일본인 투수 다르빗슈 유(26·사진)가 8일(한국시간) 애리조나주 피오리아에서 열린 샌디에이고와의 시범경기에서 선발등판해 2이닝 동안 2루타 2방을 허용했으나 탈삼진 3개를 곁들여 무실점으로 막았다.



日 극우언론 "한국타자 일서 안통하는 이유..." 망발

일본 극우보수파를 대변하는 것으로 알려진 산케이신문사 계열의 석간 후지가 7일 인터넷판을 통해 '일본 야구계에 한국 승부조작 여파! 떠도는 괴담'이라는 제목으로 "한국 스타 타자가 일본에서 통하지 않는 이유는 한국에서는 포수가 구종을 알려주기 때문"이라고 보도하면서 한국야구를 폄하했다.

말 아끼는 김기태감독 ... 알아서 뛰는 LG

김감독, 경기조작 관련 질문엔 철저히 함구
선수들도 충격 받고 볼 하나하나 힘찬 함성

봄이 다가오고 있지만, 마음은 아직도 한겨울이다. 한 때 팀의 주축이었던 프리에이전트(FA) 3명이 동시에 빠져나갔고, 그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엔 에이스와 5선발 후보를 동시에 잃었다. 특히 경기조작 사건으로 인한 박현준과 김성현의 이탈은 감독으로서 그야말로 뼈를 깎는 아픔과 같을 터.

오кина와 전지훈련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LG 김기태 감독(사진)은 두 선수 얘기가 나오면 "나중에 얘기하자"며 말을 아끼고 있다. 의혹이 제기됐을 때만 해도 사태 추이에 관심을 내비쳤지만, 검찰 조사에 이은 구단의 퇴단조치까지 내려진 뒤에는 이 사안에 대해서 철저히 말을 삼가고 있다.

하지만 "외부 변수와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하면 된다"는 김 감독의 기존 입장은 변화가 없다. 여기에



선수단은 자발적으로 '경기 조작 충격'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분위기다.

오кина와에서 다른 팀과 연습경기를 치르는 LG 덕아웃에는 파이팅이 넘친다. 홈사고교팀처럼, 볼 하나 하나에 선수들의 함성이 터진다. 공수교대 때는 누가 지시한 것도 아닌데 선수들이 모두 뛰어나니며 힘을 낸다. 고참 이병규와 최동수가 팀 분위기를 이끈다. 한동안 어둠과 침체된 모습에서 벗어나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다는 의지가 엿보일 정도다.

LG 한 관계자는 8일, "이제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했다.

김 감독은 여전히 말을 아끼고 있지만, 선수들이 알아서 움직이며 하나로 뭉치고 있다. 비 운 뒤 땅이 굳듯, LG가 아픔을 딛고 다시 뛰고 있다. 김도현 기자

박현준 수사종결·김성현 구속기간 연장

박현준(26)은 재소환 없이 수사 종결, 김성현(23)은 구속기간 연장해 보완 수사. 한때 팀 동료였던 둘의 처지가 계속 엇갈리고 있다.

박은석 대구지방검찰청 2차장검사는 8일 오후 2시, 정례브리핑을 열고 "(박현준의) 재소환 계획이 없다"며 추가 조사가 없이 기소할 뜻을 밝혔다. 반면 김성현에 대해서

는 "보완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법원으로부터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8일 체포된 김성현의 구속기간은 8일로 만료될 예정이었다.

검찰은 김성현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보완 수사를 진행한 뒤, 12일쯤 이들과 프로야구 경기조작에 연루된 브로커, 그리고 프로배구 승부조작으로 불구속 입건된 선수들을 일괄 기소할 계획이다. 정도현 기자

김경문 "전훈목표 90% 달성"

NC 장단점 파악...포지션별 경쟁구도 큰 소득

"캠프에서의 목표 달성치는 90% 이상이다."

김경문 NC 감독(사진)이 애리조나 전지훈련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NC는 미국 애리조나주 투산에서 50일간의 전훈을 마치고 7일 귀국했다. 지난해 10월 10일 강진에서 창단 훈련을 시작한 뒤 제주로 이동해 훈련한 시기까지 합치면 120여일 간의 훈련이 일관된 것이다.

김 감독이 "애리조나 훈련을 통해 강진과 제주에서 볼 수 있었던 선수들의 여러 부분을 찾을 수 있었다. 선수들의 기량이 많이 올라왔다"며 유독 애리조나 전훈의 성과를 강조한 이유는 뭘까. NC는 애리조나에서 국내 프로팀들과 연습경기를 진행했다. 강진~제주에서의 청백전 또는 대학팀을 상대한 경기와는 성과가 다를 수밖에 없다. 그가 "이번 캠프를 통해 포지션별로 경쟁구도를 만들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또 프로팀과 2승3패를 기록하는 등 연습경기를 거치면서도 "부상을 당한 선수들이 없었다는 점이 무엇보다 기분 좋다"고 말했다.

NC는 올해 퓨처스리그에서 뛰기 때문에 3월에 시범경기를 하지 않는다. 대신 많은 연습경기를 진행할 예정이다. 3월 10~11일 진해구장에서 SK 2군과의 경기를 시작으로 롯데 2군, 경찰청 등과 연습경기를 잡아놓았다. 김 감독은 "귀국하면서 새롭게 설정한 목표 달성을 위해 많은 시합을 할 예정이고, 이 시합을 통해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도현 기자 united97@donga.com 트위터@united97intl

